

메시지 4

요한복음에 있는 주관적인 진리들의 회복

성경: 요 1:14, 16, 14:16-20, 6, 20:22, 4:10, 14, 6:35, 57, 12:23-24, 3:29-30

I. 주님은 성경에 있는 주관적인 진리들을 회복하기를 갈망하신다 — 요 1:14, 14:16-20, 딤후 3:15-16상, 딤후 4:22, 3:15-16.

A. 성경의 진리들에는 항상 두 방면, 곧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이 있다 — 롬 8:34, 10, 골 3:1, 1:27.

1. 하나님의 구원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그것은 제일 좋은 겉옷으로 상징된 외적이고 객관적인 방면과, 살진 송아지로 상징된 내적이고 주관적인 방면이다. 우리의 객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는 외적으로 우리의 구원이시고, 반면에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주관적인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내적으로 우리의 구원이시다 — 눅 15:22-24, 비교 롬 5:10.
2. 모든 객관적인 교리들은 주관적인 체험을 위한 것이다. 객관적이신 그리스도는 ‘제일 좋은 옷’, 곧 참회하는 죄인을 덮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의(렘 23:6, 고전 1:30)이시고, 반면에 주관적이신 그리스도는 ‘살진 송아지’, 곧 믿는 이들이 부활 안에서 생명 공급과 누림을 얻도록(요 10:10, 6:63, 11:25, 12:24, 4:10, 14, 20:22)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 풍성한 그리스도(엡 3:8)이시다.
3. 우리의 객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으며, 반면에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 — 시 45:13-14, 빌 3:9, 계 19:7-9.
4. 의롭게 되는 것은 ‘생명에 속한 것’인데, 이것은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생명의 유기적인 연결을 갖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의롭게 된 결과이다 — 롬 5:10, 17-18, 11:17, 24, 요 15:4-5, 고전 6:17.

B. 주관적인 진리들은 그 영과 생명에 연결되고, 그 영과 생명으로 조성된다 — 요 6:63, 고후 3:6.

1. 그 영과 생명은 주관적인 진리들의 실질이다. 따라서 그 영과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주관적인 진리도 갖지 못한다.
2. 그 영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는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하게 되며, 이것의 결과로 교회생활이 산출된다 — 롬 8:2, 4, 16:1, 4-5.

II. 주관적인 진리들에 관한 책인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들을 가져야 함을 제시한다 — 요 4:14, 6:57, 20:22.

A. 요한복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에 관한 책이다 — 요 1:4, 3:15-16, 10:10, 11:25, 14:6상.

1.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아들은 생명의 체현이시며, 그 영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 요 5:26, 1:4, 6:63.
2.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증가는 생명의 성장과 흘러넘침이다 — 요 7:37-38, 15:1-8.
3. 이기는 이들은 생명의 푸른 풀밭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누리고, 분배하는 이들이다 — 요 1:12-13, 16, 10:9-10, 21:15-17.
4.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원천이시고, 아들은 생명의 솟아남으로서 샘이시며, 그 영은 생명의 흘러나옴으로서 강이시다. 이렇게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실 것이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하나님은 생명의 영광으로서 즉 아버지는 생명의 빛으로서 계시고, 아들은 생명나무로서 계시며, 그 영은 생명의 강으로서 계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다 — 요 4:14하, 계 21:9하-11, 23, 22:1-2, 5.

- B.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계시되신다 — 요 1:1.
1.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 요 1:3.
 2.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육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 요 1:14.
 3.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 요 1:29.
 4.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시는 영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신약을 위해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을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집(벧엘)의 건축을 위한 돌들로 변화시키시려는 것이다 — 요 1:32-42, 51, 비교 창 28:11-22.
- C. 말씀은 육체가 되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분이 되시게 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실 수 있다 — 요 1:14, 14:16-17.
- D. 그리스도는 숨이신 그 영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들이쉴 수 있게 하였고, 생수이신 그 영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마실 수 있게 하셨으며, 생명의 떡이신 그 영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 — 요 4:10, 14, 6:32-33, 35, 51, 54-57, 7:37-39, 20:22.
- E. 그리스도는 참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들이다 — 요 15:1-8.
1. 포도나무의 생명과 실질과 본성이 가지들의 생명과 실질과 본성이다 — 요일 5:11-12, 벧후 1:4.
 2. 포도나무이신 아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시며, 아버지의 모든 풍성의 체현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경작하심으로 그분 자신을 그분의 모든 풍성과 함께 포도나무 안으로 일해 넣으신다. 결국 포도나무는 가지들인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을 통해 단체적으로 아버지를 표현한다.
- F.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존재의 조성 성분이 되시는 것이다 — 골 3:4, 10-11.

III. 요한복음은 교회에 관한 주관적인 진리들을 계시한다.

- A. 주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우리는 교회의 구성 요소가 된다 — 요 12:24, 20:17, 15:4-5, 3:29-30.
- B. 주님의 회복은 교회생활을 실행하기 위해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을 회복하는 것이다 — 갈 1:15-16, 2:20, 4:19, 1:2.
1.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한 것의 결과인 교회는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조성되신 그리스도이다 — 엡 3:16-19.
 2.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셔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산출하셨다 — 골 1:27, 18, 2:19, 3:15.
 3.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 안에서는 머리이시고, 우리 안으로 조성되신 분으로서는 몸이다 — 엡 1:22-23, 3:17, 4:15-16, 골 1:18, 27, 3:4, 2:19, 3:15.
- C. ‘교회’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지라도,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교회의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정의되었다. 요한복음에서 교회는 다음의 일곱 가지 방식으로 언급되었다.
1. 교회는 많은 밀알들,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산출된 많은 믿는 이들로 구성된다 — 요 12:23-24.
 2. 교회는 주님의 많은 형제들로 구성된다 — 요 20:17.
 3.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다 — 요 14:2, 23.
 4. 교회는 많은 가지들이 있는 아들의 포도나무이다 — 요 15:5, 7.

5. 교회는 완결되신 영에 의해 태어난 그 영의 새 아이, 곧 새사람이다 — 요 16:20-22.
 6.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부이다 — 요 3:29-30.
 7. 교회는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양 떼이다 — 요 10:14-16.
- D. 실질적인 교회생활은 우리가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한 결과이다. 우리가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할 때, 교회가 자연스럽게 산출된다 — 롬 8:10-11, 12:4-5, 16:1, 4-5, 고전 1:9, 30, 15:45하, 6:17, 1:2, 12:27.
- E.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한 결과는 잔칫집인 교회생활이다 — 요 12:1-11.
1.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모두 교회의 ‘삼각형’ 지체, 곧 ‘마르다-나사로-마리아’가 되어야 한다.
 2. 참된 교회생활 안에서는 주님께 근면한 봉사가 드러지고, 주님에 대한 살아 있는 증거를 볼 수 있으며, 주님을 향해 절대적인 사랑이 부어진다. 이것이 주님을 담고 표현하는 그릇인 주님의 몸의 참된 표현이다.